

“중국인 이야기”의 매력적인 인물, 생생한 현장감



이종욱

現 북카페 반디 운영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2005. 3. ~ 2006. 8.)
 한겨레, 문화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기자

나이에 따라 책 읽는 습관도 바뀌는 듯하다. 언론사에서 일할 때 책 읽기는 오로지 필요에 의해 지식, 정보, 지혜를 꺾어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요즈음은 ‘즐기기 위한 독서’를 한다. 재미를 지향하니 ‘책 읽기’가 즐거운 행위가 되었다. 어떠한 명저라도 한 장(章)이 지나도록 읽기에 버거우면 예전처럼 억지로 읽어내려고 애쓰지 않고 아예 접어버린다.

김명호 교수가 펴낸 “중국인 이야기 1”(한길사, 2012)의 가장 큰 미덕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한 쪽밖에 안 되는 ‘책을 내면서 덧붙이는 말’에 담겨 있다. “40년 가까이 중국은 나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놀이터였다.” 우리는 그저 그가 펼쳐놓은 놀이마당에 들어가 흥겹게, 그러나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며 즐기만 하면 된다.

이곳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 쑨원(孫文), 후스(胡適), 마오쩌둥, 장제스와 장징궈(蔣經國),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푸이(溥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만이 아니라 꽤 생소한 캉성(康生), 류원덴(劉文典), 추안핑(儲安平), 차이어(蔡鏗)를 비롯해 사상가 장선푸(張申府), 미모의 혁명가 세쉐홍(謝雪紅), 여성 외교관 궁평(龔澎), 상하이 황제 두웨성(杜月笙), 걸출한 화가 쉬베이이홍(徐悲鴻)·치바이스(齊白石)·예첸위(葉淺予) 등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인물들을 만나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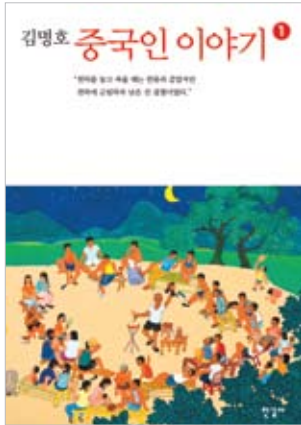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중소 외교사의 숨은 일화를 통해 스탈린의 독특한 풍모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알렉산더 포우프가 그의 시 ‘인간론’의 첫머리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김명호 교수에게도 중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가 처음 펴낸 책은 ‘중국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인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인물론이다. 중국 근현대사의 주역뿐 아니라 밑거름이 된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를 일화와 함께 간결하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이 책은 인물론이다. 중국 근현대사의 주역뿐 아니라 밑거름이 된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를 일화와 함께 간결하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책·잡지·영화·노래·경극·새벽시장, 크고 작은 음식점 돌아다니며 즐기지만” 한 탓인지, 지식 과잉도 없고, 지식 과시도 없다. 폼 재지 않고, 기교와 재주를 부리지도 않았다. ‘인용을 위한 인용’도 없다. 일기나 편지, 증언(특히 20여 년간 ‘문화노인’들이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회고록, 연보, 보도 등 풍부한 일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인 생생한 현장감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의 매력은 ‘간결한 인용’과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감칠맛 나는 끝맺음이다.



이 책의 매력은 ‘간결한 인용’과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감칠맛 나는 끝맺음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간이 만든 재난(人禍)이다.” 1962년 1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7000인 대회’에서 국가주석 류사오치가 대약진운동을 지지한 마오쩌둥을 완곡하게 비판한 말이다. 흐루쇼프가 “마오쩌둥이 방구 한

번 시원하게 갈기러다 바지에 똥쌌다”며 빈정댔 정도로 실패한 대약진운동이었지만, 이 말에 마오쩌둥은 심기가 불편해진다. “후계자로 여겼던 류사오치의 충성심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몇 해 뒤, 홍위병들이 류사오치가 사는 중난하이로 포위하고 낮밤 없이 팽과리를 두드리며 구호를 외쳐댔을 때, 경호원들이 잡지는 시간만이라도 중단시키려 하자 마오쩌둥은 “내버려둬라. 나는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게 좋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에는 시끄러운 법이다.”라며 제지했다. 류사오치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 과정이 현장 중계하듯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충고는 어떤가? “객관과 겸손은 미덕일 뿐이다. 편견과 오만함을 끝까지 고수하라!” 역설적이지만 경청할 만하다. 대수장가이며 목록학, 판본학의 대가인 푸쯩상(傅增湘)이 교육총장 시절에 쉬베이훙에게 한 충고이다. 쉬베이훙의 재능을 알아본 푸쯩상은 그를 프랑스로 유학보냈고, 귀국한 쉬베이훙은 1929년 1월 베이징예술학원(베이징 미술학원의 전신) 원장에 취임했다. 쉬베이훙은 34년이나 연상인 노인 치바이스를 삼고 초려 끝에 교수로 모셨다.

목수 출신에 학교라고는 다닌 적이 없고 자기 때문에 분란이 생길까 두렵다며 거절하는 치바이스에게 쉬베이훙은 이렇게 말했다. “교수의 자격은 진실과 실학이다. 출신은 따질 필요가 없다. 서양 유학을 마친 사람 중에는 나를 포함해 허명만 등에 지고 돌아온 사람이 많다. 전통과 민간 회화의 기교를 융합해 독특한 풍격을 창출한 예술가는 선생밖에 없다. 학생들도 배우고, 나도 배우겠다.”

이렇게 비롯된 쉬베이훙과 치바이스의 친교는 이 책에서 사뭇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이다. 쉬베이훙을 만나지 못했다면 치바이스가 국화대사(國畫大師)나 인민예술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1946년에 그린 ‘송백고립도(松柏高立圖)’는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경매에서 4억 2550만 위안(약 718억 원)에 낙찰되었다. 1928년에 열린 전시회에 내놓은 치바이스의 그림은 8위안(元)이었다. 구석에 전시된 치바이스의 작품을 발견한 쉬베이훙은 책임자를 불러, 중앙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옆에 걸게 하고, 가격표에 동그라미 한 개를 덧붙인 뒤 “쉬베이훙이 정한 가격”이라는 쪽지를 써 붙였다. 그의 작품에는 70위안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감칠맛 나는 끝맺음의 예를 하나만 들자.

“장징장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쑨원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지만 장제스를 만난 것은 불행이었다. 마오쩌둥도 여러 번 만났지만 그의 행·불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난 장징장이었지만 최후의 승자를 보는 눈은 없었다.”

‘현대판 여불위(呂不韋)’ 장징장(張靜江)을 쑨원은 ‘혁명성인(革命聖人)’이라 불렀다. 장제스에게 당권을 물려주고 본격적인 중국 건설에 나선 장징장은 “건설이 따르지 않는 혁명은 정치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겼다. 만년에 불교에 심취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음흉하고, 더럽고 난폭한 것은 정치와 여자의 생식기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중국인 이야기 1”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처럼 시대 순서로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즐기기 위한 독서’를 하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아니다. 제목이 끌리는 것부터 읽어도 되고, 재미없으면 그 에피소드는 읽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 북카페 반디 외부 전경